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

구원론의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하는 말씀과 “너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구원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늘나라 백성의 자격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나 영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구원론의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영의 생명과일

두 번째 조건은 생명과일을 먹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고로 생명과일이 뭔지 모르면 구원을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일은 영생의 과일이고, 생명과일 자체가 영적 과일이고 사랑 이기는 영이요,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영이 생명과일인 것입니다. 나이도 많고 이렇게 기운이 점점 쇠약해지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영생에 자신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영생에 자신이 없는 마음은 선악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에 자신이 있는 마음이 생명과일이고, 영생의 확신이 바로 생명과일이고로 기왕이면 생명과일을 먹어야 영생을 얻는 거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 사함 받을 수 없어

선악과 중에 영생에 자신이 없는 마음만 선악과가 아니고, 정욕이 가장 지독한 선악과인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이 가장 지독한 선악과이고로 음란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음란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며 생명과일을 6개월 이상 먹어야 그 죄가 지워지는 것입니다. 6개월 이상 생명과일을 먹어야 선악과 한 번 먹은 것을 다 지워 버릴 수가 있고, 선악과 한 번 먹은 것을 몸 안에서 완전히 뿌리째 뽑아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죄는 사함 받을 길이 없는 죄입니다.

죄 중에도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사함 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죄가 있고 짧게 그 죄가 사해지는 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란죄라는 건 영영 사함 받을 수 없는 죄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큰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음란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거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고로 성경에도 “음란죄는 몸 안에 있는 죄가 되는고로 음란죄만은 짓지 말라.”는 말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죄는 피가 더러워져서 핏속에 새겨지고, 핏속에 오염되는 죄가 되는고로 “음란죄만은 짓지 말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의인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 남

여러분들이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뒤돌아보는 음란죄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



구세주 조희성님

이 선악과를 먹는 죄가 되니까 그것도 죽을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를 예상하는 생각도 역시 선악과요, 죽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하나님에게 모든 생명과 몸과 마음과 모든 전체를 맡기지 못하게 하는 의심죄 역시 선악과인 선악과인데 그것은 온전히 생명과일을 먹는 생활을 한 1주일만 계속하면 지워지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내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은 곧 생명과일을 먹었다가 되는고로 생명과일을 계속해서 먹기만 먹으면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 중에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되는 조건이요 그 다음에는 생명과일을 먹는 조건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

령으로 거듭나는 조건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려면 바로 나를 이겨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

나를 이기려면 내 마음을 이겨야 하고, 내 마음을 이기고, 내 마음에 끌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장 안에서 살아야 마귀한테 끌려가지 않고 하나님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장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해야 그래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장 안에서 사는 자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나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고로 내 마음을 시간 시간이 지워 버리고 나를 항상 버리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해야만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바로 나를 이겨야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요, 나를 항상 버려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요, 내 마음을 시간 시간이 지워버려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라는 주체 의식이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사랑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이 성령이고로 태초의 하나님과 성령과는 천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의 하나님은 마귀한테 진 하나님이고로 마귀한테 진 하나님은 마귀의 포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면 이것이 바로 부활

마귀의 포로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석방되어 나오거나, 마귀의 포로 된 상태에서 마귀를 죽이고 이긴자가 되어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되어 영

무공토록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 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영생의 하나님이 되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부활함을 입는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바로 영적무덤이 되는 나라의 의식, 마귀가 되는 나라의 의식, 사망이 되는 나라의 의식을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됐을 때에 부활함을 입었다가도 되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도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먹었다도 되고, 생명과일을 먹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된다, 생명과일을 먹는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부활함을 입는다, 하는 말이 같은 말이요, 같은 뜻의 말인 것을 오늘날 이 사람이 시간 시간이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명과일이 곧 믿음이고, 믿음이 곧 생명과일이고, 믿음이 곧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요, 믿음이 곧 부활함을 입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1991년 10월 25일 말씀 중에서
원현욱 기자 정리

진정한 사랑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상대방의 오점을 간파하여 그를 지적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서는 알면서도 너그럽게 속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꽤나 안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을 “그래, 참 훌륭하다. 그래, 그래.”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5리를 가자고 하면 10리를 같이 가주고 걸음을 달라고 하면 속

웃까지 주며 상대방이 하자는 대로 그 요구에 응해주는 것이 자기 고집과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해 보면 그의 생각의 범주를 알게 되고 그의 생각의 범주를 넓혀 주면서 대화를 하게 되니까 굳이 장황하게 설명을 늘어놓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끌려왔던 것입니다.*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유전학적 내세관

사람들이 사후 내세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불확실한 것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명쾌하게 분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잊지도 않은 내세를 설정해서 현실 세계에 대한 패나치나 안식처쯤으로 현혹한다면 인류의 입장에서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람이면 누구나 공감하다시피 내세의 문제는 ‘인간의 유한성의 극복’, 즉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하는 탐구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감추어진 허구(虛構)와 진실을 알아보자.

오랜 옛날 인간의 의식이 계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삶과 죽음을 엄격히 분리할 만한 분리의식을 갖지 못했다. 원시인들은 마치 어린아이의 의식 상태와 같아서 내부세계와 외부세계, 삶과 죽음, 영혼과 육체 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다 인간의 인지능력과 지적수준이 발달됨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시간의 흐름을 인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만물을 비롯하여 인간도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고통 속에 신음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는 인간의 생의 의

지와는 달리 속수무책으로 쇠병사장(衰病死藏)의 외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인간은 뭔가 대안이 필요했다. 늙는다는 것과 죽음을 대한 불안과 공포, 그리고 짓누르는 허무감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 또 이승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이 절실했던 것이다. 이러한 ‘죽음의 극복’이라는 숙제는 인간에게 있어서 ‘불멸의 추구’라는 의지로 표출되게 된다. 내세는 바로 이러한 불멸에 대한 열망에서 추상된 공상이다. 나는 비록 지금은 죽으나 내 영혼은 영원하리라?

인류의 내세관의 양태

인류의 내세관의 양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동양의 일원론적 사유구조로서 ‘무한한 우주적 순환 고리’에 나라는 개체 혼(魂)을 흡수시켜 버리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우주적 삶의 무한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추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유구조를 ‘내재적 내세관’이라 칭하겠다. 또 하나는 서양의 이원적 사유구조로서 시간 내에 존재하는 이 세계를 초월하여 무시간의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연



히 인간을 영혼과 육체로 분리하여 보게 된다. 나의 육체는 썩고 없어지지만 나의 영혼은 다른 세계에서 계속하여 영원히 산다. 우리는 이러한 사유구조를 ‘초월적 내세관’이라고 부르겠다.

동양적 내세관

내재적 내세관(內在的 來世觀)은 동양적 일원론의 사유구조에서 비롯된다. 동양은 계절풍적 지대의 습윤성(濕潤性)으로 인하여 농경문명이 일찍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땅은 동양인들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농경문화에 있어서는 나의 존재의 양식의 원천이 바로 땅에서 나오고 있으며, 모든 것은 땅으로 환원되

며, 땅이아말로 모든 생명을 산출하는 생산성의 근원인 것이다. 따라서 나의 존재의 영원성을 확보하는 순환의 마당은 바로 땅이고, 땅이아말로 하늘보다 더 중요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농경생활의 사유구조 형성에서는 필연적으로 내재성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농경민족의 내재성에 대한 강조는 하늘과 땅의 내재적 전체로 이해되기 때문에 양자는 이원론적으로 분리되지 않는다. 하늘이 없이 땅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 땅이 없이 하늘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농사를 짓는 땅이 없이 하늘의 비가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문

대(代)이음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한다. ‘씨받이’라는 영화에서 잘 보여 주듯이 이런 풍속의 속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풍습을 가진 족속이 있다. 에스키모인들은 그들의 부모가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으면 빙판으로 끌고 가 백곰의 밥이 되게 한다고 한다. 그들의 의미 상 백곰은 존재론적 순환을 의미한다. 에스키모의 삶의 환경에서는 썩을 곳을 찾을 수가 없다. 그들이 찾는 존재의 썩음의 마당은 바로 백곰의 뱃속이었던 것이다. 백곰에게 잡아먹힘으로 말미암아 백곰의 생명의 연속성 속에 나를 참여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자식들은 또 그 백곰을 잡아먹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영원히 자손들의 삶 속에 남아 있을 것이다. 나의 개체적 삶은 유한하지만 백곰에게 잡혀 먹는 행위를 통하여 ‘우주적 삶의 무한성’을 획득한다. 이러한 삶과 죽음의 의식은 나의 죽음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나의 죽음을 타 존재의 삶 속으로 전이시키는 방식이다. 이 세계 내의 시간의 구조 안에서 불멸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한성을 무한한 존재론적 순환구조에 합치시켜 버린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영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들의 내세는 결국, 그들의 ‘다음 세대’ 내지는 ‘우주적 순환 고리’라고 굳게 믿는다.*

김주호 기자

죽음 극복 위한 추상적 사고